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파-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로야구] 검색

한승혁 선발 카드로 KIA 연승 잇는다



지난 4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한승혁이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오늘 한화전·15일 롯데전 등판... 1227일 만에

타선 이명기·김선빈 맹타로 상승 반전 이끌어

T 타이거즈 전망대

■ 2018 KBO리그 팀순위 (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2	9	0	3	0.750	0.0
2	SK	12	8	0	4	0.667	1.0
3	KIA	13	8	0	5	0.615	1.5
3	NC	13	8	0	5	0.615	1.5
5	KT	13	7	0	6	0.538	2.5
6	넥센	14	7	0	7	0.500	3.0
7	한화	12	5	0	7	0.417	4.0
8	LG	13	5	0	8	0.385	4.5
8	삼성	13	5	0	8	0.385	4.5
10	롯데	13	2	0	11	0.154	7.5

반전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이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KIA 타이거즈다. 헥터-양현종-팻단을 앞세우고 LG 트윈스와 시즌 첫 원정길에서 첫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던 KIA는 지난 3일 SK 와이번스와 원정경기에서는 3-13 대패를 당하며 3연패까지 빼졌다.

4선발 이민우가 2회도 버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고, 4일에도 5선발로 나선 정용운이 3이닝 5실점으로 일찍 흔들리면서 KIA의 연패가 길어지는 것 같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가 있었다.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던 한승혁이 이날 엔트리 등록과 함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특유의 강속구로 압박하고, 커브로 허를 찌른 한승혁은 SK의 홈런 군단을 4이닝 1실점으로 묶었다.

한승혁의 깜짝 활약에 힘입은 KIA는 1-5를 9-6으로 뒤집으며 연패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5일 우천취소로 하루 쉬어간 뒤 KIA의 연승행진이 시작됐다. 헥터-양현종-팻단이 넥센 히어로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호투 릴레이를 하며 KIA는 3연패 뒤 4연승으로 반전을 이뤘다.

연승에도 다른 위기도 있었다. 지난 4일 SK와의 연장 승부에서 역전 결승 홈런을 터트렸던 이범호가 홈런 후 첫 타석에 섰던 6일, 넥센 선발 최원태의 공에 맞으면서 오른손 약지 중수골 미세 골절을 당했다. 팀의 정신적인 지주의 이탈 속 다른 부상까지 겹쳤다. 이범호가 부상을 당한 이날 버나디나가 타격 도중 오른손 손바닥 통증을 호소했고, 김선빈은 슬라이딩 도중 허리를 빼앗히면서 KIA는 7일 대폭적인 라인업 변경에 나섰다.

이범호, 버나디나, 김선빈이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지만 KIA는 안치홍의 선제 스리런을 앞세워 5-1 승리를 거뒀다. 선수층이 탄탄해지면서 부상 위기도 KIA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던 신에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무대가 됐다.

반전의 시작점인 한승혁이 또 다른 반전을 위해 마운드에 선다.

이민우와 정용운의 연속 부진 속 한승혁이 앞선 호투를 발판 삼아 선발로 기회를 잡았다. 한승혁은 10일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다. 지난 2014년 10월 12일 삼성전 선발 이후 1227일 만에 선발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김기태 감독이 '다음 기회'까지 약속한 만큼 정상적인 로테이션대로라면 오는 1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도 한승혁이 선발로 나선다.

한승혁은 "1군에 합류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팀 승리 기여하고자 마음먹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선발 기회가 왔다. 선발 통보를 받고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다"며 "한 주의 시작인 만큼 내가 첫 경기를 잘 해야 한다. 1이닝 1이닝에 집중하겠다. 자신 있게 승부하면서 팀 상승세를 이끄고 싶다"고 밝혔다.

타선에서는 이명기와 김선빈의 반전이 반갑다. 지난 7일 17타수 무안타에서 벗어나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명기는 8일에는 영양가 만점의 솔로포도 터트렸다. 팀이 3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같이 침묵했던 김선빈도 넥센전 두 경기의 결승타를 책임졌다. 타선의 시작과 끝에 자리한 두 사람의 동반 상승세를 앞세워 KIA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넥센전 승리로 109승을 올린 양현종은 이번 주 110승 투수에 도전한다. 통산 21번째 기록이다. '0의 행진' 속에 불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만형' 임창용은 1400탈삼진(통산 6번째)에 7개를 넘겨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소식

5선발의 설움

류현진 선발 등판 또 변경

하루 앞당겨 내일 출전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발 등판 일정이 또 변경됐다.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애초 일정에서 등판을 하루 앞당긴다. 알렉스 우드의 식중독 때문이다.

우드의 식중독은 류현진의 등판 일정을 더 불규칙하게 했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와의 첫 등판에서 3.2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부진했다.

로테이션을 따르던 류현진은 9일 샌프란시스코전에 나서야 했지만 다저스는 너무 오래 쉬면 불만해하는 1선발 클레이턴 커크를 위해 9일 선발을 커크로 바꿨다. 여기에 2선발 우드의 규칙적인 등판을 위해 11일 선발도 우드로 정했다. 12일 등판을 준비하던 류현진은 우드의 식중독으로 다시 11일 등판을 통보받았다.

'5선발의 설움'을 겪는 류현진의 호투가 더 절실해졌다. /연합뉴스

추신수, 오승환에 적시타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동갑내기 친구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을 상대로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9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토론토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7로 뒤진 8회말 1사 1·2루에서 오승환과 마주했다.

1사 1루에서 등판한 오승환은 대타 노마 마자라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했고, 드루 로빈슨은 2루 뜬공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추신수와 맞섰다.

오승환은 직구를 감춘 채, 추신수와 상대했다. 조구 체인지업으로 추신수의 헛스윙을 끌어냈고, 다시 체인지업으로 유인구를 던졌다.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는 커브를 구사해 볼 카운트를 1볼-2스트라이크로 유리하게 끌고 갔다.

하지만 4구째 체인지업 유인구에 속지 않은 추신수는 시속 121km 커브를 받아쳐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적시타를 쳤다. 이 사이 2루주자 로빈슨 처리노스가 홈을 밟았다. /연합뉴스

패트릭 리드 그린재킷 입었다

PGA 마스터스 우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패트릭 리드(28·미국)가 세계랭킹 '톱 10'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리드는 9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1위에 랭크했다. 지난주보다 13계단 오른 순위다.

리드는 이날 끝난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최종합계 15안타와 273타를 기록하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2016년 세계랭킹 7위까지 올라갔던 리드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2017년 2월(10위) 이후 만에 다시 톱 10 진입에 박차가 걸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는 1주 전(103위)보다 15계단 상승한 88위를 차지했다.

우즈가 100위 이내에 진입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날 3타를 줄였으나,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공동 32위에 그쳤다.

더스틴 존슨과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1, 2위 자리를 지켰다. 존슨과 토머스는 이번 대회에서 각각 공동 10위와 공동 17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날 8언더파의 불꽃 타를 휘두르며 단독 3위를 차지한 조던 스피스(미국)는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오르는 데 만족했다. /연합뉴스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벌어진 마스터스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패트릭 리드(미국)가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그린재킷을 입고 있는 패트릭. (작은 사진) /연합뉴스

100마일 강속구...오타니 2승

7이닝 1안타 무실점

일본이 자랑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사진)가 최고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지배했다.

3경기 연속 홈런으로 '타자 오타니'의 재능을 맘껏 뽐낸 오타니는 '본업'인 투수에서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오타니는 9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7이닝을 1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쳤다. 볼넷은 단 한 개만 내줬고, 삼진은 무려 12개를 잡았다.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활약 속에 6-1로 승리했다. 투수 데뷔전이었던 2일 오클랜드전에서 6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다소 운이 따른 승리를 챙겼던 오타니는 두 번째 등판에서 '괴물 투수'의 위력을 뽐내며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한지 중계진은 경기 내내 '오타니, 오오 오타니'를 외쳤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첫 안타를 내줬을 때 "오타니가 퍼펙트 달성에 실패했다"고 경기 상황을 전했다.

오타니는 1회 첫 타자 맷 조이스를 시속 138km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생애 첫 홈런을 쳤다. 마커스 세미엔은 시속 154km 직구로, 제드 로리는 140km 포크볼로 삼진 처리했다. /연합뉴스



오타니의 쾌투 행진은 이어졌다.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시속 140km 초반 스피리티의 제구가 거의 완벽했다. 오타니는 6회까지 단 한 명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은 '퍼펙트 행진'을 벌였다.

오타니는 7회 1사 후 세미엔에게 시속 154km 직구를 던지다 좌전 안타를 맞았다. 후속 타자 로리는 볼넷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크리스 데이비스를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한숨을 돌린 오타니는 맷 손슨을 시속 142km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에인절스는 1회말 2사 1루에서 앨버트 푸홀스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칼 갈혼의 좌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오클랜드는 오타니가 마운드를 내려간 9회초에야 맷 조이스의 솔로포로 한 점을 뽑았다. 경기 내내 타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운드 위 오타니만 홀로 빛났다. /연합뉴스